

방학철 '위험한 채팅'

청소년 성매매 40%가 인터넷 이용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방학기간 중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경찰에 적발된 사범은 총 138명으로, 이 가운데 43%(60명)가 동계·하계방학 기간 중 적발됐다.

2006년의 경우에도 149명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7%(85명)가 방학기간 중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 중 인터넷 이용 성매매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채팅사이트를 통한 조건 만남과 온라인 게임 중 쪽지와 메일 등을 서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성을 사고 팔았다.

구직·에인 대형·파트너 검색 사이트 게시판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접

근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터넷 성매매 수법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비교적 쉽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청소년 성매매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기간을 틈타 가출한 청소년들이 유흥비와 숙식비 마련을 위해 PC방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에 나서고 있어 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방학기간 중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에 나섰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달 초 가출한 여중생 A양은 인

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21)에게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갈 곳이 없는 A양은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라는 B씨의 유혹에 빠져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했다. B씨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접속한 성구매 남성 10여명에게 1회당 10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A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이다.

A양이 받은 화대는 B씨가 모두 가로채 사실상 A양은 한 푼의 돈도 만져보지 못했다. B씨는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해 온 경찰에 붙잡혀 지난 14일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고은경 여성청소년계장은 "방학기간 중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선 방학 중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따뜻한 겨울·적설량 부족 동면 못드는 지리산 반달곰

16마리 중 11마리 배회 중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따뜻한 겨울과 적설량 부족으로 겨울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곰들의 동면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저기온은 영하 5.

1도였지만 올해는 2도 가량 높은 영하 3.3도에 그쳤다. 올 겨울 지리산의 적설량도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이날 현재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 16마리 중 11마리가 겨울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먹이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2005년

겨울에는 1월 11일까지, 2006년에는 이보다 훨씬 빠른 12월 23일 동면에 들어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팀 이배근 박사는 "지리산 일대 온도가 예년보다 높고 눈 또한 일부 지역은 아예 없는 등 기후 변화가 심해 동면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허위 출동 수당 의혹

담양 의용소방대 수사

담양군 의용소방대가 출동 수당을 편법으로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군 의용소방대가 지난해 9월 7~8일 집중호우 피해 예상지역 출동수당을 받아내면서 실제 출동하지도 않은 사람이 포함된 358명의 명단을 제출해 군으로부터 1인당 3만원, 모두 1천74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의용소방대원 358명을 불러 출동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15일 현재 경찰에 출두한 130명 중 10여명 가량이 실제 출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담양=장필성기자 bungy@

나원침



다 좋은 건축·신설사업 KCC

DS건설(주) KCC그룹, 연세의료대 대학원

KCC정보, 시스템정보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그룹, 연세의료대 대학원

실리콘·방수재·철척재·타이프

인터넷 채팅 주의보...부모들의 역할은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고 자녀와 잦은 대화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 청소년들이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각종 인터넷 채팅 사이트가 많아 불건전한 만남이 쉽게 가능해진 것도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채팅에 대한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채팅이란 무엇인지 ▲채팅을 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채팅할 때 주의점을 항상 강조하고, 어떤 채팅방이 건전하고 안전한지 평가를 해 청소년 스스로 건전한 채팅방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또 자녀가 자주 이

용하는 사이트와 채팅방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고 만약 유해한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대화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에 유해 전문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고, 인터넷 사용 장소를 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태환 제주지사 무죄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태환(66)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

상철)는 15일 오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지사 등 6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재산권, 사생활 보호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젠틀맨비노기과의원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전화 (062) 233-5119

이천 화재 참사는 방화문 미작동 탓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가장 큰 이유는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화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왔다면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화문은 19방동실과 1냉동실 사이 통로에 설치돼 있었으나 화재 발생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코리안방동측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불편하다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연철뉴스

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왔다면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화문은 19방동실과 1냉동실 사이 통로에 설치돼 있었으나 화재 발생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코리안방동측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불편하다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연철뉴스

돈받고 부정합격 도운

이용사협회 간부들 실형

응시자료부터 돈을 받고 이용자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합격을 도운 한 국이용사협회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병 부장판사는 15일 돈을 준 응시자들의 실기성적을 높게 평가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부당하게 합격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49)·김모(59)씨에게 징역 10월을, 백모(46)·선모(58)·김모(51)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의 나머지 4명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한국이용사협회 광주지회와 동부지회 간부 또는 이용업 종사자인 이들은 2004~2006년 실시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일부 시험과정에서 20여명의 응시자로부터 10만~18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실기점수를 높게 주는 등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편이 내연녀에 준 쌀 때문에...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쌀 포대를 다시 가져온 박모(여·42·영광군 영광읍)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암 22 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남편의 내연녀 서모(41)씨 집에서 40kg들이 쌀 8포대와 승진약·치약 등 생필품을 가져갔다는 것.

○박씨는 경찰에서 "올해 남편과 함께 수확한 쌀 포대와 집에서 사용하던 생필품들이 눈에 띄자 화가 나 모두 챙겨왔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빌려준 돈 대신에 박씨 남편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박씨를 고소.

○경찰은 쌀 포대 등이 박씨 부부의 공동 소유물이긴 하나 남편이 서씨에게 증여한 점이 인정돼 박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으며, 남은 쌀 1포대를 증거물로 압수.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1255300-0100